

##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김지현	학번	■■■■■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5. 1. 18(일) ~ 2. 8(일)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Langara 대학은 제 홈스테이 집에서 버스, 지하철을 타고 3-40분 걸렸지만 그 덕분에 캐나다 대중교통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학교는 a,b,c 등의 동으로 구분되어서 길을 찾기 쉽도록 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업은 2개의 강의실에서 이루어졌지만 수업 첫 날 오후 수업 대신에 학교 구경을 할 수 있어 학교 곳곳을 둘러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수업	<p>하계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순천향대에서 같이 어학연수를 간 15명의 학생끼리만 ELS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은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이루어졌고, 일주일에 이를 가량은 오후 수업 대신에 체험학습을 나갔습니다. 수업을 오후 늦게까지 하는 것이 아니었고 오후 수업이나 체험학습을 나가더라도 3시에 마쳤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수업은 문법이나 쓰기도 배웠지만 그보단 스피킹과 듣기에 초점이 맞춰졌고 그 중에서도 스피킹을 중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즐거운 분위기에서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말하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셨습니다. 과제는 수업 내용과 연결된 것이었고 항상 다음 수업 시간에 과제 내용을 다뤘습니다. 모두 수기로 쓰는 과제였기 때문에 따로 컴퓨터가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과제들 중 인터뷰과제는 랑가라 학생이나 체험학습에서 만나는 사람들, 홈스테이 가족들을 인터뷰 해오는 과제들로 이를 통해 다양한 외국 사람들과 얘기를 해 볼 수 있었습니다. 수업 내용과 과제는 모두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어려운 내용이 있을 경우 선생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p> <p>수업 규칙으로 영어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규칙을 가장 잘 지킨 학생에게는 마지막에 상을 주기도 했습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도 박물관 관람, 아쿠아리움 관람부터 지역 구경, 켈링, 곤돌라 타기 등의 다양한 activity를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p> <p>Granville Island에 방문했을 때에는 파트너와 함께 약 8-9명의 외국인들을 인터뷰해야 하는 미션을 수행했었는데 여행지도 구경하면서 처음 보는 외국인들을 인터뷰도 할 수 있어서 더 즐거웠습니다. 켈링이나 산에 갈</p>

	때에는 조금 추울 수 있으니 장갑과 모자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활동은 추가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눈은 오지 않고 비가 많이 옵니다. 비도 장대비처럼 오기보다는 부슬비, 샤워 정도로 오기 때문에 우산을 꼭 준비해 가야 합니다. 한국보다 훨씬 춥지 않고 우리나라 3월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강의실도 춥지 않지만 저녁에는 조금 쌀쌀할 수 있으니 패딩은 1벌 정도 준비하는 것이 좋고 두껍지 않은 옷 여러 벌과 코트를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	안전한 도시라고는 하지만 겨울에는 5시면 어두워지고 5-6시면 사람들이 퇴근하고 거리가 한산하기 때문에 통금시간을 지키고 늦은 시간에는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알려주거나 홈스테이 가족들에게 위험한 곳을 알려달라고 하여 그 곳에는 가지 않도록 합니다.
숙소	홈스테이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저는 캐나다에 이민을 온 필리핀 가족들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집에는 저 말고도 홈스테이를 하는 다른 한국인 친구가 있었고 부부와 아이 2명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홈스테이 가족들은 정말 친절했고 김치나 라면을 주시기도 하고 제가 지내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3주를 정말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basement에 있는 방을 썼는데 방에는 침대, 책상, 옷장 2개, 서랍장 1개, 히터 1개가 있었습니다. basement에는 거실도 있고, 방 바로 옆에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 홈스테이 ( ○ ) 외부식당 ( ) 기타( ) 전 날 저녁에 먹고 남은 음식을 점심으로 싸가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저는 홈스테이맘이 매일 저녁 요리를 따로 해주셔서 매일 다른 메뉴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침에는 시리얼이나 빵, 과일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먹을 수 있었고 점심은 밥이나 파스타를 기본으로 매일 메뉴가 달랐는데 제가 한국인인 것을 고려해주어 밥을 싸주시는 날에는 항상 김치를 같이 넣어주셨습니다. 저녁의 경우에는 밖에서 사먹은 적이 많지만 집에서 먹는 경우에는 밥과 치킨, 누들 등을 먹었습니다.
교통	첫 오티 때 학교에서 10개의 버스티켓이 들어있는 티켓묶음을 3개 제공해주어 버스, 지하철을 탈 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통학도 하고 따로 여행도 다니다 보니까 티켓이 부족하여 북스토어에서 2개의 묶음을 더 구매하였습니다.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347,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약3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약 120,000원	
관광	약 78,000원	
교통비	약 72,000원	교통비(패스2개, 페리 등) 관광지 입장료 등
기념품	약 300,000원	
합계	약 1,947,000 원	

## 5. 출국 전 준비사항

캐나다하면 한국보다 많이 춥고 눈도 많이 올 것 같은 이미지이지만 벤쿠버는 이와는 다르게 눈보다는 비가 많이 오고 한국보다도 훨씬 덜 춥기 때문에 우산을 꼭 챙겨야 하고 많이는 두껍지 않은 옷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도 비에 젖을 수 있으니 2켤레 정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에어캐나다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화물의 크기와 무게를 꼭 확인하고 짐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전이 많아질 수 있으니 동전지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슈퍼나 다운타운에 한인마켓에서 한국 음식을 구매할 수도 있으나 한국보단 비싸므로 몇 개 가져가는 것이 좋지만 이 때도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의 무게도 고려하여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외국에 혼자서 3주 동안 나가는 것도 처음이었고 홈스테이 생활을 해보는 것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가기 전에는 설렘보단 걱정이 더 컸습니다. 3주라는 시간이 영어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기에는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어학연수를 간 친구들과 언니, 오빠들이 모두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3주의 시간을 더 즐겁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덕분에 만난 랑가라 선생님들과 학생들, 홈스테이 가족들과 홈스테이를 같이 한 한국인 언니 덕분에 미래에 대한 저의 시야를 넓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다양한 문화를 깨닫고 접해볼 수 있어서 좋았지만 그보다도 학과 공부에만 관심이 있었던 더 넓은 세상과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도 있어 정말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의 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큰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잉글리시 베이’에서</p>	<p>컬링_체험학습</p>
	
<p>Granville Island_체험학습</p>	<p>Grouse mountain_체험학습</p>
	
<p>홈스테이 가족과 함께</p>	<p>Closing ceremony 단체사진</p>